“더 좋은 사회 위해 ‘길 없는 길’ 가는 게 정치인 숙명”

조국, 전남대서 ‘인생’ 주제 특강
주거·돌봄혁신으로 사회권 보장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 퇴행”
풀뿌리 대중조직 강화 위해 노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전남대 총학생회 초청 특강을 위해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저는 정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바꾸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길 없는 길 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0일 전남대학교를 찾아 ‘총학생회 초청 명사 특강’을 진행, 평소 자신이 생각해 왔던 정치적 견해와 비전 등을 공유했다. 이날 특강에는 전남대 학생·교수·지역민 300여 명이 참여해 경제·사회·법학 등 여러 갈래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행사 시작 1시간을 앞둔 이날 오후 6시께 전남대 용지관 앞에는 특강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지나가던 이들은 ‘무슨 행사라도 하느냐’며 괜스레 안쪽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곧이어 조국 대표가 행사장에 도착하자 곳곳에서 ‘신기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 대표는 이날 학생들과 학식(학생식당)·차담회를 갖기 위해 비공식 일정으로 전남대를 일찍 찾았다.

조 대표는 이홍규 총학생회장을 비롯, 4명의 과 학생회장과 함께 해뜰마루 학식을 찾아 거주·생활비 등 경제적 고충과 졸업 후 진로 등 ‘교수 조국’으로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강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강단 위에 올라선 조국 대표에 연신 환호를 보냈다. 자신을 ‘범생이 조국’이라 소개한 조 대표는 부산에서 태어나 혁신당 대표까지 올라선 과정을 담담히 풀어냈다.

조 대표는 “울산대 재직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개월 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 이후 사형 폐지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며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신념으로 학자로서 곳곳에 글과 발언을 이어갔다. 사회 변화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생각도 밝혔다. 특히 자신이 정치를 통해 바꾸고 싶은 목표를 적나라하게 전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주의가 퇴행했기 때문”이라며 “창당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 동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하라고 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입틀막’ 현상 등 불안감을 느낀다.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며 “점차 국가 채무율은 높아지고 국민 부담도 늘어가고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멀어지고 있다. 주거혁신·돌봄혁신 등으로 사회권이 보장된 나라를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특강 이후에는 △박구용 철학과 교수 대담 △학생·시민 질의응답 △포토타임이 진행됐다. 70여 분 간의 행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은 자신이 준비한 여러 선물을 조 대표에게 전달했다.

직접 만든 나물 반찬을 선물한 80대 김모씨는 “조 대표 보기 위해 멀리서 왔다. 오늘 강연도 너무 좋았다. 일평생 정치를 봐 왔지만 이렇게 진정성 느껴지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한 달 동안 전남에서 홀로살기를 한다고 해 직접 반찬을 준비해 왔다. 조금이라도 힘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쓴 책을 선물한 전남대 학생은 “조민을 보고 조국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부정적) 색안경을 썼는데 학자이자 정치인 조국을 보면서 ‘나와 결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 출판된 책을 준비했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 조국’으로서 발표한 강연에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사 특강’ 프로그램을 추진한 이홍규 총학생회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초대가 조심스러웠지만, 특정 정치색을 떠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화가 이뤄져 뜻깊었다. 특히 무보수로 강단에 서줘 너무 감사하다”며 “오늘의 조언과 비전 발표는 전남대 학생과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학생회 활동은 봉사나 다름없다. 과거 교수로서 이들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객석을 가득 메워준 광주시민과 전남대생들에 감사하다. 더 좋은 사회와 풀뿌리 대중 조직 강화를 위해 시민 만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주철현 민주 최고위원 “지역민 바람, 정책으로 관철”

송순호 등 지명직 임명 의결
호남·경남지역 대표인사 중용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여수 갑·사진) 의원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 의원은 전남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남도당위원장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호남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올곧게 전하게 호남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 의원은 “지역민의 바람이 주요 정책으로 반영돼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남형 기본사회 구현, 호남 중심 민주정권을 창출하고, 상생 협력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임명된 원외 인사인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출신이다.

이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과 험지로 꼽히는 경남 지역 대표 인사를 중용한 지역 안배 인사로 풀이된다.

특히 10·16 영광·곡성 재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도전장을 내는 등 흔들리는 지역민심을 끌어 안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과 송 위원장은 12일 열릴 예정인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野,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처리 시도

법사위 의결… 지역화폐법도 처리
국힘 “의회 독재와 싸울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하고 12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다.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6일이다.

민주당은 원내 공지를 통해 “12일 대정부질문 직후 법안 상정과 이에 대응한 무제한토론이 예상된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토론 관련 대기자를 편성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대체자를 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했다.

4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야당은 이날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 박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으로서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계속 싸우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도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에 박웅두

영광은 장현·정광일 결선행

조국혁신당은 10·16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혁신당 후보로 박웅두(사진) 전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를 최종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당 재보궐 선거 후보자 경선을 통해 박웅두 대표가 전남 곡성군수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혁신당 곡성군수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2명의 후보 중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100% ARS)에서 과반을 득표해 후보자로 최종 확정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영광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4명의 후보가 맞붙었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 간 결선을 진행하게 됐다. 결선 진출자는 장현 김대중재단 영광군지회장과 정광일 김대중재단 수석부위원장이다.

앞서 혁신당은 4인 이상의 경선 선거구에 대해서는 1차 여론조사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성현 기자

야 4당 의원들, ‘尹 탄핵준비 연대’ 제안

“현실화 위한 법적 준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의원연대’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혁신당)·윤종오(진보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었겠나”라며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탄핵 연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야4당 의원들은 윤 정부 인사들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친일 성향의 대일외교, 21번의 거부권 행사, 세수결손, 검찰 독재 등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탄핵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다”며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 시켜가기 위한 법적준비와, 의원확대를 해나갈 것”이라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토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자 모임에는 강득구·민형배·문정복·박수현·김정호·복기왕·김준혁·양문석·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혁신당)·윤종오(진보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김선욱 기자